



4월 1주차 |

주간 인도네시아

시장 동향 및 이슈





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4.2	3.26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VN	1,224.45	1,162.21	↑ 5.36	↑ 10.92	680.23 '20/04/02	1,224.45 '21/04/02
인니	자카르타종합	6,011.46	6,195.56	↓ -2.97	↑ 0.54	4,480.61 '20/04/16	6,435.21 '21/01/13
인도	SENSEX	50,029.83	49,008.50	↑ 2.08	↑ 4.77	27,590.95 '20/04/03	52,154.13 '21/02/15
중국	상해종합	3,484.39	3,418.33	↑ 1.93	↑ 0.33	2,763.99 '20/04/03	3,696.17 '21/02/19
	심천종합	2,262.08	2,214.81	↑ 2.13	↓ -2.89	1,689.57 '20/04/03	2,468.66 '21/02/19
홍콩	H	11,217.41	10,966.06	↑ 2.29	↑ 4.46	9,281.52 '20/09/29	12,228.63 '21/02/17
	항셱	28,938.74	28,336.43	↑ 2.13	↑ 6.27	22,930.14 '20/05/22	31,084.94 '21/02/17
한국	KOSPI	3,112.80	3,041.01	↑ 2.36	↑ 8.33	1,724.86 '20/04/02	3,208.99 '21/01/25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4.2	3.26	전주대비(bp)	전년말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2.44	2.43	↑ 0.90	↓ -14.00	2.20 '21/01/15	3.60 '20/04/17
인도네시아	6.69	6.71	↓ -2.10	↑ 80.60	5.89 '20/12/30	8.21 '20/04/06
인도	6.17	6.12	↑ 4.30	↑ 30.10	5.75 '20/05/28	6.50 '20/04/13
중국	3.20	3.20	↑ 0.10	↑ 5.30	2.48 '20/04/08	3.36 '20/11/19
한국	2.05	2.01	↑ 4.20	↑ 33.00	1.28 '20/07/30	2.16 '21/03/18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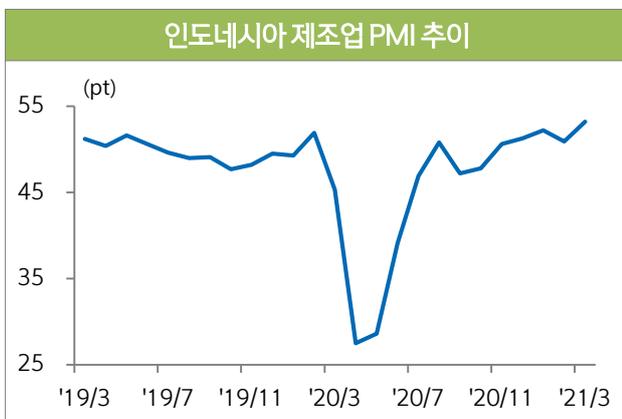
구분	4.2	3.26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달러-동 (VND)	23,073.00	23,076.00	↓ -0.01	↓ -0.11	22,970.00 '21/02/08	23,600.00 '20/04/02
달러-루피아 (IDR)	14,525.00	14,418.00	↑ 0.74	↑ 3.38	13,878.00 '20/06/05	16,495.00 '20/04/02
달러-루피 (INR)	73.33	72.52	↑ 1.12	↑ 0.35	72.33 '21/02/24	76.87 '20/04/16
달러-위안 (CNY)	6.57	6.54	↑ 0.40	↑ 0.61	6.43 '21/01/29	7.17 '20/05/27
달러-원 (KRW)	1,127.55	1,129.33	↓ -0.16	↑ 3.78	1,081.81 '20/12/04	1,243.91 '20/0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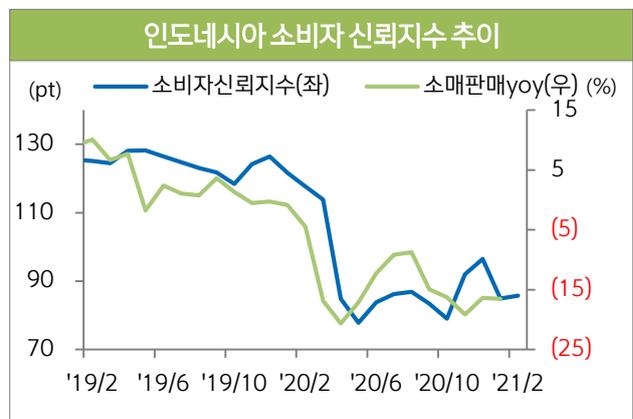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 인도네시아 3월 제조업 PMI 사상 최고치인 53.2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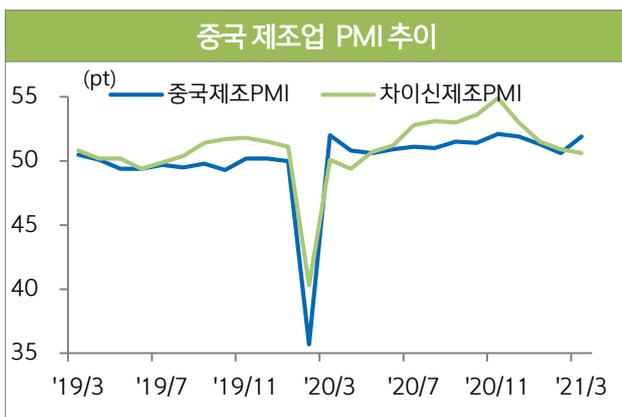
- ▶ 3월 인도네시아 제조업 PMI는 53.2pt를 기록하여 5개월 연속으로 기준치인 50pt를 넘어서는 확장 흐름을 지속하였고 지난 10년간 동안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음. 3월에는 출하와 신규 주문이 늘어난 것에 따른 것으로 생산 캐파의 가동률을 높인 한 편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물류가 지연되면서 투입 물가 상승에 따라 제품 가격에 반영하려는 의지가 높아진 것이 PMI 상승의 배경이 되었음
- ▶ 2월까지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낮게 지속되면서 소매판매의 부진이 지속되었지만 3월 제조업 PMI를 통해 신규 주문이 늘어났다고 응답한 것이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수요 측면에서도 일부 가시적인 개선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3월 들어 1일 확진자 수 증가세가 평균 5천명 수준까지 감소하였고, 누적 백신 접종자수가 12백만명을 넘어서는 등 백신 접종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어 3월부터는 민간 소비의 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임. 다만, 3월의 신규 주문 증가는 올해 4월 14일부터 시작되는 라마단 기간과 5월의 르바란을 앞둔 예비 수요 측면도 반영되어 있어 본격적인 개선이 나타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라마단 기간에도 코로나19 확산세를 낮추기 위한 보건 지침 준수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됨
- ▶ 주요 수출처인 중국의 제조업 PMI가 중국 인민은행의 긴축적인 흐름으로 인해 하락 흐름을 보였지만, 여전히 50pt를 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중국의 원자재 및 소비재 수요에 따른 수출도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것을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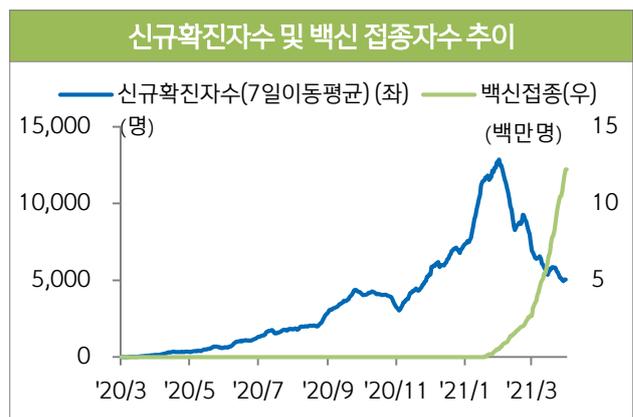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주요 뉴스





인도네시아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장관급 회담 진행



❖ 요약 및 시사점

국영기업부, 무역부, 외교부 장관이 중국 무역부,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 회담을 진행하였음. 국영기업부는 양국 국영기업 간의 투자 및 노하우 전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최근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 중인 전기차사업에 대한 투자를 언급하였고 외교부와 무역부에서는 양국 무역 협정을 보다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하기로 논의함

-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무역 및 투자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관급 회담을 진행하였음.
-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 Erick Thohir 장관은 중국의 국영 자산 관리감독 위원회(SASAC) Ren Hongbin 부위원장과 양국 간의 국영 기업의 협력 강화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였음. 인도네시아는 중국이 어떻게 그들의 국영 기업들을 성공적으로 개혁 조치를 하였는지를 배워서 더욱 효율적이고 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이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는 지에 대한 노하우를 문의하였음. 인도네시아의 국영기업과 중국의 국영기업들은 각국 내에서 비슷한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장관은 외교부 및 무역부 장관과 함께 중국 측과 회담을 진행하였음. 그러면서도 양국 사이에는 수준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면서 2020년 포브스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에 중국 기업은 48개가 진입해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BRI와 만디리 은행 2개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라고 장관은 말하였음.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SASAC은 중국 내 97개 국영 기업들을 관리하고 있음. 양국은 양국 국영 기업간에 더 굳건한 국영기업 협력 플랫폼을 만들어나가는 방향에 대해 대화하였음. 이를 위해서 SASAC이 인도네시아의 국영기업부와 국영기업 인사들을 정기적으로 초청하여 SASAC 및 중국 국영기업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하였음.
- 이 자리에서 국영기업부 장관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투자 및 개발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장관은 최근 설립된 인도네시아 배터리 회사(Indonesian Battery Corporation) 컨소시엄의 설립과 관련하여 중국의 CTAL와 CBL이 약 50억 달러 수준의 투자를 진행하는 것을 언급하였음. 국영기업부에서는 투자조정위원회(BKPM)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 투자를 진행하는 것에 제약을 가져오는 방해물들을 해결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중국 측에 전달하였음.
- 한편 무역부 장관은 중국 무역부장관과의 협의 이후에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현재 양국간의 310억 달러 수준의 무역 규모를 향후 3년 내에 1천억 달러 규모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 양국은 2011년 체결한 상호간 경제 및 무역 협력(BETC)을 무역 및 투자 프레임워크 합의(TIFA)로 발전시키기로 논의하였다고 장관은 덧붙였다.

(뒷면 계속)

- 무역부 장관은 BETC보다 상위 개념인 TIFA로 무역 관계를 발전 시킨 이후에 궁극적으로는 양국간에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양국 관계의 강화 방향을 언급하였음. 양국은 회의를 통해서 양국의 무역 수지의 균형을 맞춰나가기 위해서 우선 낮은 수준의 성과물 부터 시작해 나가기로 하였음. 150개 중국 기업들이 13.8억 달러 수준의 투자를 서부 칼리만탄 지역에 집행하여 3천명이 넘는 고용에 기여하는 등이 언급되었다고 장관은 말하였음. 무역관계 향상을 통하여 양국 간의 상호 경제 관계의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임.





경제 조정 장관, 국가 경제 회복에 있어 중소기업의 역할 강조



❖ 요약 및 시사점

2020년 코로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자율 보조 및 보증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을 통한 경제 회복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늘릴 계획임. 중소기업들의 운전자본 지원을 통해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임

- 경제 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 경제 회복을 이끌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하였음. 중소기업이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에 있어서 전체 고용의 61.1%를 차지하며 1억 1,690만명에 달하는 인력들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말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 경제 회복 예산 699.43조 루피아 가운데 184.83조 루피아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잡아두었다고 하였음.
-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 지원들을 포함한 지원 조치는 총 6가지 분류로 나뉘어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율 보조, 중소기업의 생산성 강화, 공적 보증기관에 대한 지원, 공공 은행에 대한 자금 배분, 세금 혜택 및 채무 재조정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음.
-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 중소기업들은 크게 타격을 보았다고 하였음. 정부가 195,09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23.1%는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19.5%는 제품을 유통하는 물류에 제약을 받았으며, 19.45%는 운전 자본 부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내용은 아시아 개발은행의 조사와도 유사한 결과인데, 아시아 개발은행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30.5%가 국내 수요 감소의 영향을 받았고, 48.6%는 일시적으로 사업장을 폐쇄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들을 회복 시키기 위해서는 추가 담보 제공없이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이크로 금융 관점에서 운전자본을 지원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회복시키는 촉매가 될 것이라고 장관은 말하였음.
- 2021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자율 보조를 3%로 늘리고, 원금 분할 상환 시점을 유예하며, 해고된 공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규정을 완화하기로 하였음.



투자 조정 장관, 대중들에게 중소기업 제품 구매 독려



KEMENTERIAN KOORDINATOR
BIDANG KEMARITIMAN

❖ 요약 및 시사점

투자 조정 장관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해달라고 대중들에게 요청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그들의 제품을 더 많이 홍보하고 QRIS를 통해서 더 많은 온라인 결제가 이뤄진다면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들이 살아나면서 고용 및 투자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하였음

- Luhut Binsar Pandjaitan 투자 조정 장관 은 대중들에게 국내에서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제품들의 구매를 독려하였음. 중소기업 구입 캠페인을 지난 토요일(4/3) 발표하면서, 장관은 2020년 한해 동안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400만여 중소기업들이 그들의 제품들을 홍보하였다고 말하였음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1,300만 여 기업에 달하였다면 이 이러한 수치를 2023년에는 3천만까지 늘릴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다고 하였음.
- 국내산 중소기업 물품 사용하기 캠페인은 2021년 4월에 서부 자바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산 제품 자부심 운동(Gemas BBI)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 장관은 이러한 움직임이 국내산 물품들을 최대한 많이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경제에 기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총 1300조 루피아에 달하는 자본 지출을 통해서 인도네시아는 250조 루피아에 달하는 국내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것이수입을 줄이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음. 이를 위해 중소기업부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서부 자바 행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였음.
- 장관은 2021년 말에는 610만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1200만 이용자들이 QR 코드 인도네시아 지급 결제(QRIS)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음.



산업부, 2030년까지 전기차 60만대 생산 목표



❖ 요약 및 시사점

산업부는 2030년까지 전기배터리기반 차량과 오토바이의 생산 규모를 대규모로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제조사 및 소비자에 대한 세금 지원 등의 여러가지 조치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제조 산업에의 참여로 국가 경제 성장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산업부는 2030년까지 전기배터리에 기반한 오토바이 245만대, 전기차량 60만대의 생산 목표를 설정하였음. 전기차량의 생산 증가를 통해서 차량에서 27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전기 오토바이의 생산을 통해 11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자 한다고 산업부 장관은 발표하였음.
- 이를 위해서 3개 국내 생산 기업들이 전기차량을 제조하기 위한 공장을 건설하였으며, 현재는 합산 생산 능력이 연간 1,480대 수준이라고 장관은 말하였음.
- 전기 배터리 차량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는 재정 및 비 재정적인 지원들을 차량제작사 및 소비자들에게도 제공할 계획임. 소비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는 전기차량 구매에 대해서 0% 사치세 부과(PPnBM), 지방세 10% 상한 부여, 0% 할부금리 제공, 저리 대출 제공, 전력 공급 할인, 특별 차량 번호 등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장관은 말하였음.
- 한편, 차량 제작사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는 세금 면제, 세금 할인, 수입 관세 면제, 연구개발용 슈퍼 감세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였음. 장관은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에 있어서 거대한 기여를 하는 산업이라고 말하면서 현재 21개의 차량 제작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운영 중이라고 말하였음. 이 산업에서는 3.8만명의 고용을 직접적으로 감당하고 있고, 생산망에 연계된 150만 명의 파생 고용을 책임지고 있다고 장관은 말하였음.
-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의 판매를 증진하기 위해서 1,500cc 이하의 엔진을 가진 4륜차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부가 부과하는 사치세를 올해 3/1~12/31 기간 동안에 세율 완화해주기로 하였음.



산업부, 인도네시아의 그린 산업화를 독려



❖ 요약 및 시사점

산업부는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부문이 점점 더 많이 그린 산업의 개념을 가지고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재활용,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단순히 환경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재생과 효율화를 통해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음

- 산업부는 제조업 부문에 대해서 그린 산업의 컨셉을 통해서 지속가능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독려하고 있음. 그린 산업의 개념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자원의 재활용 및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방식의 적용 및 지속가능한 체계의 구축, 대체 에너지원으로써 폐기물의 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임.
- 산업부는 2010년 이래로 인도네시아 기업들에게 그린 산업으로의 전환을 강조해왔는데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화가 실행되면 3.5조 루피아 상당의 금액이 절감되고,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이뤄진다면 2,290억 루피아 상당의 금액이 절감된다고 장관은 말하였음. 그린 산업의 전환을 통한 효율성 증대가 단순히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것 뿐만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재생 산업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개발되어 왔는데 플라스틱, 윤활유, 종이, 섬유 및 금속의 재활용 등에 대한 부분들을 포괄하는 개념임. 재생 산업은 순환 경제를 달성하고, 폐기물을 감축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였음. 대략 91.3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매년 다양한 종류의 신규 부가가치 생산물로 재생되고 이에 따라서 10조 루피아 상당의 경제적 성과를 기여한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재생산업을 통해서 1억 4,190만 달러에 이르는 수출 잠재력도 생긴다고 하였음.
- 산업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서 대략 600개 대기업과 700개 중소기업들이 플라스틱 재활용과 관련하여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총 투자 규모는 7.15조 루피아, 매년 생산 규모는 230만 톤에 달한다고 말하였음.



인재 육성 기업들에 대해 슈퍼 세금 감면 지원



❖ 요약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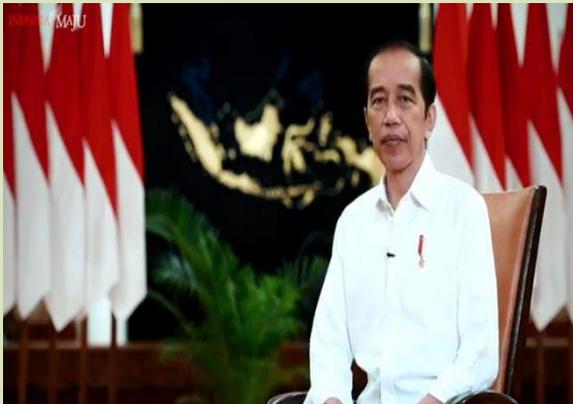
지난 2019년 관련 법령이 발표된 이후로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는 최상위권 인재를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하는 세금 감면 정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직업 교육 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의 효율성, 생산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투자금으로 인정하여 세금에서 감면하고 있음

- 경제 조정부 관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능력있는 최상위권 인재를 육성하고자하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슈퍼 세금 감면 지원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 정부령 제 45호에 따라 직업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과 기업가들에게 최대 200%에 달하는 슈퍼 세금 감면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두었음.
- 통계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산업계가 원하는 인력의 수준과 교육기관에서 키워내는 인력의 질 사이에는 대략 50%에 달하는 차이가 있다고 조사되었음. 이로 인해서 조코위 대통령은 인적 자원 개발을 2기 임기 처음부터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오고 있는 상황임.
- 슈퍼 세금 감면은 총 수입에 대한 감면을 기준으로 최대 20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업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인턴십, 교육 활동 등에 투자되는 금액 만큼을 감면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러한 세금 감면을 통해서 산업 현장의 효율성, 생산성,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들의 이익 창출력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음.
-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산업계와 협력하여 직업 교육 기회를 늘리는 것도 세금 이외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 직업 교육 기관들은 산업 현장과 인턴십에서의 실제 업무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기회나 현재 업무의 수행 능력을 높이는 교육 등을 다양한 산업계 파트너 기업들과 함께 수행하고 있음



조코위 대통령, 증권거래소 및 은행권 인력에 대한 백신 접종 참관



❖ 요약 및 시사점

3/31부터 은행 및 자본시장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대규모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됨. 대통령은 금융산업이 백신 접종을 통해 고객들을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한다면 경제 회복을 위한 자금의 조달 지원과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면서 경제 회복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음

-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3/31일 증권거래소에서 개최된 은행 및 자본시장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대규모 코로나19 예방 접종 행사에 참석하였음.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고객들과 대중들을 매일 상대하면서 금융시장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대규모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해 금융 산업 종사자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더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하여 경제의 회복을 가속화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음.
- 은행산업과 자본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국내 경제 회복을 위한 자금의 지원 및 결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실물 경제의 산업 부문과 소비도 정상화될 수 있다는 판단임. 은행 및 자본시장 종사자들에 대한 접종은 증권거래소 건물 이외에도 핵심 4개 지역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음